



실내조경-베란다조경



송 광 섭
이투데이 증권부장

자연을 내 품 안에... '실내 조경'



벤처 거품이 한창이던 2000년 무렵 웬만한 사무실은 고가의 인테리어를 동원,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사장실은 물론 7~8명이나 되는 임원들까지 각자 사무실이 있었으니 그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찾아온 손님들에게 우리 회사에 돈이 넘쳐 흐른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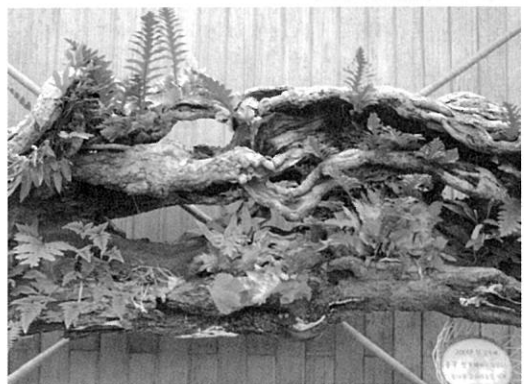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무실을 둘러봐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무실 현관 입구는 번쩍번쩍하게 빛을 내는 회사 마크가 벽면에 크게 새겨져 있다. 회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안내 데스크 구입에는 많은 돈을 들인다. 사무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개업식이나 창립 기념식 때 받은 커다란 화분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그렇지만 화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실 내에 화분이 많으면 한층 사무실 분위기가 생기 있고 부드러워 보인다. 사무실을 찾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회사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카페형 음식점도 과거에는 조화 일색이었다. 하긴 지금도 유명하다는 호텔 커피숍을 들어가 봐도 온통 조화로 장식해놓은 곳이 있다. 손님들의 미적 감각을 무시한 처사다. 딱딱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리 크지 않은 컨테이너나 플라워 박스를 설치해보자. 반음지 또는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잘 배치해놓으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여행사 사무실의 야자수는 여행에 대한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수영장에 재현된 열대림은 사람들에게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켜 준다. 실내조경은 단지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작업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 정원,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업무공간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곳이다. 하루 중 8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무 환경이 향상될수록 업무 능력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자연경관이나 식물은 긴장감을 해소하고 시각적인 즐거움마저 선사한다. 이런 가운데 업무 능력 향상과 복지 차원에서 실내 정

원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실내 조경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실내에 식재된 식물은 포름알데히드와 니코틴, 벤졸, 페놀 등 공기 중의 유해성분을 정화해준다. 일부 음식점들을 가보면 실내에서 잘 자라는 화초들로 내부 장식을 해놓고 있다. 마치 숲 속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 또한 정겨워 보인다. 집안에서도 아이비나 스킨답서스를 들여놓고 길러보자. 잘 시들지 않기에 잘만 키우면 오랫동안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다.

실내조경이란 한마디로 고정된 용기나 옮길 수 있는 용기에 식물을 심어 지속적으로 실내를 꾸며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돌 담장, 실내연못, 오브제 등의 시설물도 동원된다. 실내조경의 최상의 조건은 건물 설계와 시공 때 전기, 물, 가습, 조명, 배수장치와 화단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배선이나 수도공사, 가습기, 조명시설, 배수시설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내정원 조성 시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면 교체와 관리가 용이하고 분위기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실내에서 식물을 기를 때 자연광이 부족하면 백열등이나 형광등 등 인공광을 보충해줘야 한다. 특히 실내 조경작업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지속성과 생생함이다.

아무리 보기 좋은 식물도 생장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식물의 생장과 발육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유전특성과 외적 환경요인에 크게 좌우된다.

식물은 적합하지 않은 환경 조건에서는 생장을 멈추거나 여러 가지 생리장애 발생 현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광, 온도, 수분, 대기 등 식물의 최적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식물의 선택은 실내조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내 조경 공간

과 기후 조건에 맞춰 식물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활용 가치가 높은 자투리 공간 '베란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런 가운데 실내 정원은 자연과 접하고 식물을 가꾸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내 공간의 정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실내에 식물을 도입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 베란다는 확장하는 가구가 늘면서 확장된 공간에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내 정원은 삭막한 생활공간을 생명이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뿐만 아니라 유해 전자파를 줄이고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베란다는 실내 조경에 적합한 곳이다. 베란다는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중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곳으로 내부 깊숙한 곳보다 온도와 광 조건이 양호해 식물생육에 적당하다.

거실의 경우 사람들의 체류공간이 길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종과 소품을 활용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간이 비좁다는 느낌을 줄

경우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보다 수형이 독특한 한두 수종만을 식재하는 것이 더 나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 실내 정원 조성 시 지나치게 정원에만 집중해 조성할 경우 수종이 과다하게 들어가 외부 경관을 가리거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크기 변화를 피하고 대체로 키가 작은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해야 한다.

또 플라워 박스만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좌우 주변에 박스 색깔과 비슷한 용기의 화분을 사용하면 식물이 훨씬 돋보인다. 최근에는 플라워 박스 안에 별도의 미니 분수시설이 설치돼 실내 습도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작은 조명을 곁들이면 더 좋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도심 벽면을 푸르게 '벽면 녹화'



벽면녹화를 잘 활용할 경우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벽면녹화 사업은 도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량으로 양산된 인공구조물 벽면 아래에 화단을 만들고 덩굴식물 등을 심어 벽면 전체를 푸르게 복원하는 사업이다.

벽면조경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회색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준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옹벽과 방음벽, 절개지, 콘크리트 담장 등에 담쟁이와 능소화, 송악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면 도시 경관이 크게 개선된다. 녹지화된 건물 외벽의 모습은 밝고 가볍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이들 구조물을 넝쿨식물로 녹화하면 곤충 등 작은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 도심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된다. 또 식물이 태

양 복사열을 차단해 열에너지가 절감되고 산성비와 자외선 차단으로 콘크리트 균열과 도료 탈색 등을 막아 구조물의 수명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밖에 눈에 보이는 녹지 비율인 녹시율도 크게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같이 가로 경관을 망치는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석축, 담장 등 인공구조물 벽면에 담쟁이 등 덩굴성식물을 식재해 푸르게 가꾸는 '벽면녹화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

